

전염병의 종류

김정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역학 교수

1. 아기들의 예방접종은 왜 필요한가?

아기들은 위중한 합병증, 또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전염병들로부터 보호되기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예방접종은 개인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전염병의 집단적 발생을 방지하고, 두창의 경우와 같이 지구상에서 이 전염병을 박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해에만 국한되어 있기 보다는 국가, 또는 인류 전체의 문제이므로 예방접종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염병 예방법이 개정 중에 있어 현행 법령에 예방접종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한 것이 오른쪽 표이다.

2.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전염병들을 위한 예방접종의 종류에는 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정기 예방접종과 임시 예방접종이 있다.

가. 정기 예방접종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주로 신생아와 영유아기에 모자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대상질환은 결핵, B형 간염,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폴리오(소아마비) 등이다.

나. 임시 예방접종

우리나라 주요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상과 시기를 정해서 보건사업으로 시행한다.

대상 전염병은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등이다.

3. 영유아 전염병

가. 결핵

●기침과 재채기로 전파되는 호흡기 질환 ●미열이 나고 식욕이 떨어지고 피곤하며 림프선이 부었다가 뒤에 폐결핵으로 이행 ●허약한 아기는 뇌막염(5세 미만 어린이 100만명 당 1명), 또는 속립성 결핵으로 이행하여 즉각 치료하지 않을 땐 사망도 유발 ●BCG(비씨지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

나. B형 간염

●간을 파괴(경화증) ●간암을 유발 ●근육, 관절 혹은 위에 통증 ●간염 예방접종으로 예방가능

다. 디프테리아

●기침과 재채기로 전파되는 위중한 호흡기 질환 ●낮은 정도의 열과 목이 아프면서 느리게 시작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장부전이나 마비 유발 ●디프테리아 독소이드(디피티, 디티에이피, 그리고 티디 백신에 포함되어 있음)로 예방가능

라. 백일해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질환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숨쉬는 것까지 어렵게 하는 발작적 기침 ●뇌염, 경련, 폐렴 등을 포함하는 합병증 발생 ●백일해로 발생하는 뇌염환자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다른 3명 중 1명은 영구적 뇌 손상 ●대부분의 백일해 환자는 5세 이하이고 약 1/2은 1세 이하



〈표 1〉 예방접종 관계법규 주요 내용 요약

구분	법규	주요내용
접종근거	전염병 예방법	제10조(예방접종) 국민은 이 법이 정하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제56조(벌칙)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 예방접종 실시기준은 약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다.
	약사법	제52조(침투문서의 기재사항) 용법, 용량 기타 사용 또는 취급상 필요한 사항
영유아의 예방접종	모자보건법	제7조(모자보건기구의 설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시장 군수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 보건요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등)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결핵, 폴리오, 풍진, 수두, 간염, 볼거리, 기타 질병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보건시설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양호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양호교사) 학교에는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양호교사를 둔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6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양호교사) 학급 수에 따른 배치기준
학생의 예방접종	학교보건법	제11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질병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염병 예방의 시행) 시·도지사 또는 시, 읍, 면장이 학교 또는 양호교사에게 위촉하여 정기 또는 임시 예방접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영아 ●백일해 백신(디티에이피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예방가능

다. 파상풍

●상처 난 피부를 통해 인체로 침입하여 발생하는 신경계 질환 ●신경계를 공격하는 독소(毒素)생산 ●조기증상은 두통, 자극 과민성, 그리고 목과 턱의 경직(뻣뻣해지는 것) ●나중에는 턱, 목, 팔, 다리 등의 근육에 심한 경련, 중환자실 입원 치료 필요 ●대부분의 환자는 20세 이상 성인, 단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신생아 파상풍으로 많은 사망이 발생 ●파상풍 독소이드(디티피, 디티에이피, 디티에 포함)로 예방가능

바. 폴리오(소아마비)

●위중한 경우 마비와 사망을 유발 ●온화한 경우 열, 인후(목구멍)통, 구역질, 두통, 위통이 있으며 목과 등에 통증이나 경직 ●폴리오 백신으로 예방가능

사. 홍역

●전염성이 매우 높은 호흡기 질환 ●약 일주일 동안 고열, 발진, 기침, 콧물, 눈물, 눈의 충혈 ●홍역에 걸린 어린이 12명 중 1명 꼴로 중이염과 폐렴 합병증 유발 ●홍역환자 2천명 중 1~2명 꼴로 경련, 귀머거리, 또는 지능장애를 일으키는 뇌염 유발 ●홍역환자 1천명 중 1~2명 꼴로 사망 ●홍역백신(엠엠알에 포함)으로 예방가능

아. 일본뇌염

●모기에 물릴 때 전파되며 주로 8월초~10월초에 걸쳐 9월에 가장 많이 발생 ●심한 경우 고열과 두통으로 갑작스런 발병, 자극 과민성에 이어 경련, 근육강직, 혼수, 사망 ●경미한 경우 발병 1주 후 열이 내리고 2주만에 신경증상 소실 ●지능장애, 정서불안, 진전(tremor), 마비, 저인분열증 등 후유증은 영유아에게 빈발(75%) ●일본뇌염환자의 70% 이상이 14세 이하 어린이 ●일본뇌염 백신으로 예방가능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본란은 우리 협회에서 제작한 미니문고 제37편 “영유아의 예방접종”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